



GILLETTE 행동 강령

시리즈 외

(강령들 가운데 하나의 강령)

“말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모습을 알려 준다. 행동은 그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결국 된 모습을 알려 준다.”

I. 행동 강령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모든 강령 가운데, 행동 강령은 아마도 가장 덜 관찰되지만 가장 늘 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법에 쓰여 있지 않다. 규정에도 나오지 않는다. 학교에서 드러내 놓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것은 모든 개인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며 — 선택, 반응, 호감, 거리, 침묵, 심지어 실수까지 빚어낸다.

세계의 민족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문화, 전통, 습관, 신앙을 묘사한다. 개인에 대해 말할 때, 설명은 대개 두 개의 큰 기둥에 맡겨진다: 유전과 교육. 한쪽에는 물려받은 것이, 다른 쪽에는 배운 것이 있다. 질서 정연하고, 안심이 되며, 부분적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더 복잡한 무언가를 보여 준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을 키워 간다. 멀리 떨어진 문화에서 온 개인들이 사건에 놀랍도록 비슷하게 반응한다. 같은 부모에게 배운 형제들이 정반대의 길을 가는 반면, 서로 다른 대륙에서 태어난 낯선 이들은 같은 내면의 논리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무언가가 가장 손쉬운 분류에서 빠져나간다. 그것이 내가 행동 강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첫눈에 보이지 않는다. 디자이너 정장처럼 우아하지도, 과시되는 부처럼 화려하지도, 억양이나 언어처럼 알아보기 쉽지도 않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에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행동 강령은 다른 곳에 산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에. 그가 신뢰를 내어주는 속도에. 권력을 손에 쥐 뒤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약속을 지키느냐 깨느냐의 선택에. 기다릴 줄 아는 능력에 — 혹은 기다리지 못하는 무능에.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몸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는 강령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현상의 표면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관찰하는 것은 강령이 아니라 그 효과다. 결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나무들의 움직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바람처럼, 강령은 행동과 반복, 그리고 한 사람이 시간을 두고 내리는 선택을 통해서만 짐작된다.

그것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안정성이다. 의견은 바뀐다. 이념도 바뀐다. 직업도 바뀐다. 가장 깊은 신념조차 평생에 걸쳐 움직일 수 있다. 반면 행동 강령은 알아볼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적응하고, 다듬어지고, 성숙하거나 타락할 수 있지만, 사라지는 일은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순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성격이 무엇보다 압박 속에서, 사회적 가면이 느슨해지고 내면의 구조가 주도권을 잡을 때 드러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동 강령을 관찰한다는 것은 인간을 그의 말의 예외 속에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의 연속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말은 준비할 수 있다. 행동은, 긴 시간에 걸쳐서는, 훨씬 덜 그렇다. 강령이 개인과 조직, 공동체, 심지어 국가를 이해하는 가장 귀한 지도 가운데 하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선언하는지가 아니라, 삶이 그를 시험할 때 그가 무엇이 되어 가는지를 묘사한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흔히 의도와 진실을 가르는 거리 전부가 놓여 있다.

몇 걸음 물러서면, 첫 번째 집으로 — 기원으로 돌아간다. 어떤 이론도 갖지 않았고, 심리학도 사회학도 유전학도 몰랐던 인간들에게로. 그들이 가진 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필요뿐이었다. 그 원시의 세계에서 반응은 아직 문화적 선택도, 개인적 이해관계도 아니었다. 그것은 삶 자체에 대한 대답이었다. 행동 강령은 아마 거기서 시작될 것이다: 관찰에서, 적응에서, 위험과 신뢰와 거리와 소속을 읽어 내는 능력에서. 인간이 자신을 설명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에, 그들은 이미 반응하는 법을 배웠다. 종교와 국가와 직업과 이념이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개인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행동하기 전에 관찰했고, 어떤 이는 관찰하기 전에 행동했다. 어떤 이는 동맹을 맺었고, 어떤 이는 고독을 택했다. 어떤 이는 불을 나누었고, 어떤 이는 불을 지켰다.

어쩌면 행동 강령이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결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은 채 시간을 건너는 깊은 기억. 옷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기술이 바뀐다 — 그러나 무언가

는 오래되고 보이지 않는 서명처럼 인간의 선택 속으로 계속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선언보다 반복을 더 보아 왔다. 의도보다 결과를 더.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당신에게 말한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결국 된 모습을 당신에게 말해 준다.

이것은 인류학 에세이도, 의학 논문도, 사회 분석도 아니다. 사람들과 나라들, 직업들과 삶의 계절들을 지나오며, 그들이 선언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는 것을 더 지켜본 한 남자의 시선이다.

그래서 당신과 다른 강령을 지닌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날 때, 그가 당신을 사로잡는 것은 그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다. 그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 때문이다. 몸짓과 말 사이의 거의 느낄 수 없는 그 거리 때문이다. 오래 흉내 낼 수 없는 그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대답보다 먼저 오는 그 침묵 때문이다. 시간 속에서 되풀이되어 마침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선택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당신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 뒤, 들어 주는 값으로 1달러만을 청할 것이다 — 이야기의 가치는 그것이 받는 값이 아니라, 그것이 남기고 가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II. 에필로그

강령은 결코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에 서명한다.

III. 저자의 페이지

이 작품은 의뢰받아 쓴 것이 아니다.

팔린 것도 아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자기 인식의 가치, 인간의 성품, 그리고 어떤 진단도 온전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마음의 조용한 건축을 증언하기 위해 쓰였다.

요청하는 유일한 대가는 상징적인 1달러다 — 작품의 값으로서가 아니라, 관찰과 정직과 돌봄의 문화를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로서.

Ferdinando